



꼬마 형제의 자전거 탄 풍경 “형아, 신기하지?”



같은 듯 다른 모습, 익숙한 광경입니다.
아빠의 두 발로 움직이는 커다란 자전거 뒤로 애기 자전거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빠의 자전거 뒤로 디정하게 앉아있는 형제의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전 노무현 전대통령이 두 손녀딸을 태운 채 자전거를 운행(?)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노난지’라는 별명까지 얻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전거 탄 풍경민망이나 지난 20일 광주시 금남로 거리에서 만난 부자(父子)의 모습도 경갑고 흐뭇합니다.

‘지구의 날’(매년 4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일 금남로 일대에서 자전거 타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자동차 소음과 매연으로 뒤덮여 있던 아스팔트 길이 모처럼 평화로운 모습으로 봄날의 나그네를 연출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봄바람의 환영을 받으며 시원스레 펼쳐진 길을 따라 질주했습니다. 사진 속 꼬마 녀석들도 시원한 바람을 타고 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인도 차도 할 것 없이 차와 사람 그리고 광고물들의 물결로 꽉 막힌 요즘, 상쾌한 공기를 맑으며 마음껏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덜컹 덜컹 녹두렁 길을 달리던 아버지의 솔 취한 자전거, 보조 바퀴를 떼어낸 개구쟁이 너석들의 씩씩한 자전거, ‘띠를 따릉’ 소식을 가득 실어 나르던 우리부 아저씨의 빨간 자전거… 그때 그시절의 자전거 탄 풍경이 그립습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I love MY student



임금순

얘들아, 그동안 잘 있었니? 올해도 잊지 않고 너희들의 얘기를 담은 편지를 보내줘서 고맙다. 정성이 가득 담긴 편지를 읽어 보니 새삼스레 그 때의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는구나.

그때 너희는 바닷가에 위치한 조그만 학교를 누비는 10명의 남학생과 6명의 여학생이었는데 어찌면 그렇게 개구쟁이였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지.

새 학년 첫날 아침부터 땀을 뺏好感하며 축구를 한 것을 시작으로, 2층 교실에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 간답을 서늘하게 했던 일, 복사기에 얼

얼굴을 복사한 아이들

굴을 복사한 일 등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았었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단연코 얼굴을 복사한 일일거야.

그때도 아마 놀의 푸르름이 무르익어가고 있던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구나. 우연히 도서실 옆을 지나다가 교실 바닥에 펑글고 있는 종이들을 보게 되었지. 종이를 주워 자세히 살펴보니 얼굴의 왼쪽과 오른쪽, 정면 등이 찡그린 모습으로 골고루 복사되어 있었고, 원발, 오른발, 손바닥 등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가 종이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단다.

처음에는 활당한 이 사건에 웃음이 먼저 나왔지만 얼굴이 복사된 모습을 보니 눈은 괜찮은지, 혹시 시력에 지장은 없는지 무척 걱정이 되었지. 도대체 어떤 개구쟁이 너석이 얼굴까지 복사할 생각을 했는지 밝히려고 했더니 너희는 시치미를 뚝 떼고 절대 우리가 한 짓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었지. 어찌나 실감나게 연극을 하던지 선생님도 처음에는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물(어린이날 선물인 양복을 신은 채 복사한 것)을 보고 우리 반 짓이란 걸 알게 되었단다.

그날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뜯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서던 개구쟁이 철민이, 찬훈이, 성수의 재미있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하구나.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때 선생님이 “눈, 코, 귀, 입, 손, 발 등 모두 복사했는데 학군데는 빠뜨린 것 같구나” 했더니, 찬훈이가 말하기를 “안 그래요. 선생님, 철민이는 복사기에 걸터앉아 영덩이까지 복사했는데요” 하는 바람에 얼마나 웃었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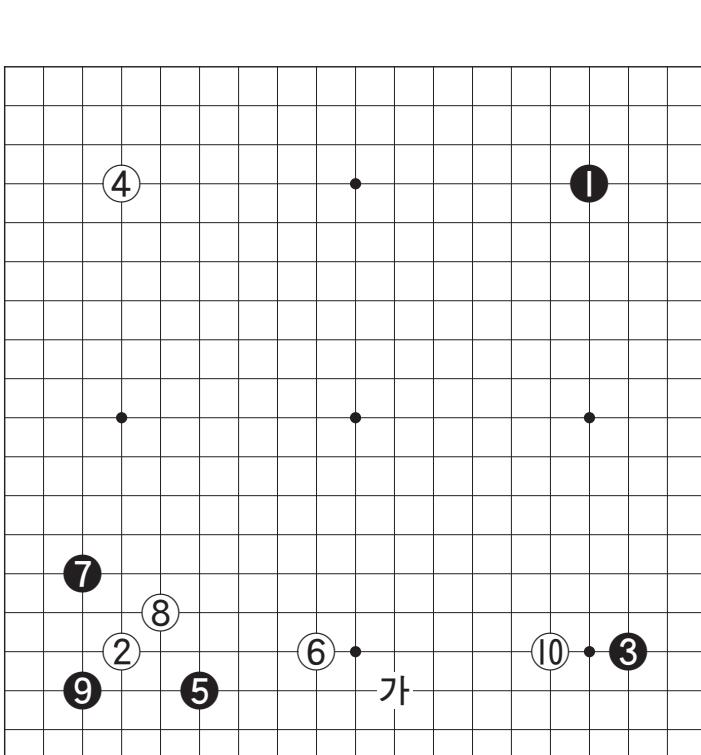
나중에 철민이는 우리 반 문집 제목을 정할 때 “선생님 문집 제목을 얼굴을 복사한 아이들로 정해요. 그때 손도 복사하고, 발도 복사하고, 뱃자코도 복사해보니 겁나게 좋더고만요”라고 말

하는 통에 우리 반은 또다시 폭소를 터뜨렸었지.

그 이후 ‘얼굴을 복사한 아이들’이란 문집을 만들었던 일이 생각나는구나. 너희는 그렇게 호기심이 많은, 티없이 맑고 귀여운 개구쟁이들이었단다.

무단히 개구쟁이였지만 1년동안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미술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기쁜 일도 참 많았었지. 무엇보다도 1년 동안 매일 일기를 쓰고, 일기장을 통해 너희와 대화를 나누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던 일은 잊을 수 없을 것 같구나. 선생님은 지금도 한마음이 되어 준 너희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어엿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 앞으로 호기심 어린 이런 장난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구나. 선생님이 바라는 건 소중한 16명의 천사들이 좀 더 의젓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오랜만에 대하는 해맑은 제자들의 소식에 너무 기뻤고, 잊지 않고 편지해주는 것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 항상 건강하고 잘 있으렴. 안녕. <안양동초등학교>



라이벌의 대결 1보(1~10)

白 임상빈 6단 黑 박정규 5단

이 바둑은 광주유단자회 리그전의
또 다른 한판으로 유단자회의 강자
임상빈 6단 직장바둑계의 최강자인
박정규 5단 대결이다.

임상빈 6단은 최강자인 삼재육 6
단 뒤를 잇는 유망주로 정찬근 6단과
더불어 유단자회 아마6단 3인 중의
한명이다.

전체전의 광주대표로 활

약한 바 있으며 현재 신창지구에서
바둑학원을 열고 꿈나무들을 양성하
면서 유단자회 연구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박정규 5단은 KT전남본부의 영원
한 대표선수로 직장바둑계의 최강자
로 널리 알려져 있다. 광주일보에서
주최하고 있는 광일배 직장바둑대회

에서 수년간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
해오다시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
둑TV에서 주최한 전국직장인 바둑
대회에서 KT팀이 단체전 우승을 차
지하는 쾌거를 이룩하는데 주역이 되
기도 했다. 직장바둑계에서는 적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맹
활약이다.

임상빈 5단은 장고파인데이가 끈
기의 화신. 그린가 하면 박정규 5단
공격적이며 밭이 빠른 기풍이다. 백
6이 비를 수였다. 이 수로는 흑 7에
받아두면 보통이나 상대가 ‘가’로 두
어 ‘미니중국식’을 펼치는 것을 방해
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세돌 바둑왕전 2회전 진출

이세돌 9단이 21일 서울 KBS신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7기 KBS바둑
왕전 예선 2회전에서 김자석 4단을 상
대로 222수 끝에 불계승을 거뒀다. 이
로써 이세돌은 이미 2회전을 통과한
백홍석, 배준희, 조한승 등과 우승컵을
다투게 됐다.

이 대회는 국내 유일의 공중파 TV
속기전이며 우승 상금은 2천만원. 전
기 우승자는 이창호 9단이고 결승은
승자조 우승자와 패자조 우승자와의 3번
기로 진행된다. 또 우승, 준우승자에게
는 한국 KBS, 중국 CCTV, 일본 NHK
가 교대로 개최하는 TV바둑 아시아
선수권대회의 출전권이 주어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리빙 센스

모공관리

① 세안

미지근한 물로 클렌징제의 거품을 내어 세심하게 씻은 다음 찬물로 마무리한다. 주 1~2회 정도 딥 클렌징이나 스크럽으로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한다.

② 기초 화장

세안 후 유분이 적은 오일 프리(oil-free) 타입의 보습제를 바른다. 예민한 눈가와 입가는 에센스나 아이 크림을 발라 주름을 방지한다.

③ 색조 화장

오일 프리의 메이크업베이스를 바르고 파우더로 품평하게 놀려준다. 시간이 지나 번들거리고 화장이 뜨게 되면 기름종이로 놀려 닦은 다음 파우더를 덧바른다. 아이섀도와 브러셔는 파우더타입이 모공을 덜 막는다.

④ 팩과 마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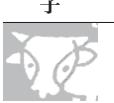
주 1회 정도 딥 클렌징 후에 피지 조절팩이나 모공 축소팩을 해주면 블랙 헤드를 제거하고 모공이 넓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2일(음 3월 17일 壬辰)



36년생 중개인이 나타나서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 48년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다. 60년생 중인의 짐으로 그 책임이나 계약에 전가되는 형상이다. 72년생 사기꾼이 주변에 맴돈다. 84년생 내 것을 빼울 수 있으니 경계하라. 행운의 숫자: 18, 34



37년생 스스로 자발하는 격이요. 49년생 내가 시끄럽고 어수선히 형상이다. 61년생 전화위복이니 변동으로 길사가 전개된다. 73년생 애인과 이성교제가 있을 수도. 85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이 되니 관계를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12, 30



38년생 부부사이에 불협화가 나타난다. 50년생 신념과 중요도를 살피며 메시지에 신중해야 한다. 62년생 실물에 힘을 써도 손세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74년생 밝은 웃음을 주변을 편하게 하거나 파악하는 행운의 숫자: 21, 43



39년생 대 발전을 약속하고 가족 빙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51년생 큰 득은 좋은 미우리에 있다. 63년생 확신이 있는 부자는 삶가로 하리라. 75년생 춘분이라도 과욕하면 결과는 대 손해를 입게 된다. 행운의 숫자: 08,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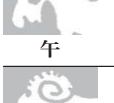
40년생 음이 여의주를 놓고 싸우는 형상이나 스스로 폐한다. 52년생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라. 64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장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76년생 과욕만큼 잊을 수 있는 손세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07, 42



41년생 송사가 생겨도 승전으로 연결된다. 53년생 겨우겨우 보내는 날이 될 수도 있으니 활용하다. 65년생 희비가 엉길리는 하루나 선택을 심사숙고하라. 77년생 매사에 조심을 다해도 불안스럽게 고猗수다. 행운의 숫자: 20, 41



42년생 문서 작업으로 인해 대고역에 실신까지 불안하다. 54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66년생 터에 의한 사인과 손세가 우려 된다. 78년생 세사가 지체되고 결과를 얻지 못한다. 행운의 숫자: 11, 25



43년생 길사에 침체될 우려는 있으나 종래와 안전 된다. 55년생 신사 투자에 손세가 크니 신중하게 속고하라. 67년생 친구 친척 간에 혼사나다마가 있게 되니 조심해야 하리라. 79년생 침착하게 서행하라. 행운의 숫자: 03, 34



44년생 비 문서로 눈물이 걱정된다. 56년생 과욕과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 68년생 제사가 순조롭게 활성화되리라. 80년생 얘기가 못한 역습이나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행운의 숫자: 14, 29



45년생 주변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수선히 대수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화 된다. 69년생 경과가 의中途처럼 좋은 하루다. 81년생 응합할 듯한 주변이 대고를 발생시킨다. 행운의 숫자: 17, 40



46년생 출의 불편사가 발생한다. 58년생 가정과 배인의 불편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걱정된다. 70년생 부부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많을 수도 있다. 82년생 백사가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03, 32



47년생 비정한 괴로움이 측근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 59년생 부부사이가 이길줄 알면 미운사람이 나온다. 71년생 이해있는 선감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다. 83년생 침체 속에實利도 있다. 행운의 숫자: 09, 38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뱃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44>

When would you like to leave?
언제 떠나실 거예요?

A: Are you ready?

B: Whenever. When would you like to leave?

A: I'm ready now.

B: All right, let's go then.

<p